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사회성과보상기금법(안)’ 마련으로 SIB 활성화 기대

01 주요 내용

- 새누리당(나눔경제특위)은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공하면 공공예산으로 보상하는 새로운 복지사업 모델인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법안을 마련한다고 발표('15.12.07.)

사회성과연계채권(SIB) : 정부가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운영기관은 민간투자자로부터 공공사업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민간 투자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 성과 평가에 따라 정부의 예산을 운영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음

- ‘사회성과보상기금법(안)’에는 사회보상기금 외 보상기준, 예산집행 방식, SIB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자금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
 - SIB가 기본적으로 정해진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만 보상하게 되어 있지만, 부분 성과 달성시 원금과 인센티브의 보상 체계 등의 내용도 담길 예정
 - SIB는 급증하는 공공복지 수요를 공공 재정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한계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44개 사업이 진행 중
- 상기 법이 제정되면 공공 재원 외 별도 기금 형태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경기도와 서울 등 지방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SIB 관련 정책들이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활성화 가능
 - 현재 우리나라 예산 체계는 단 년도(1년)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적합하고, 매년 예산의 반영여부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가감되는 구조인 반면, SIB는 다년도 사업의 성격이 강하며, 사업 평가 및 종료 시점에 원금과 인센티브에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 보다는 별도의 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더 적절하며, 다양한 사업 추진도 용이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경기도는 내년 2월부터 2년 동안 ‘SIB방식의 탈수급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 예정으로 1년 사업 후 성과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면 사회성과보상기금 또는 사회투자기금 조성
 - 초기 기금은 사업추진을 통해 절감된 예산으로 조성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자금 확보
 - 제2, 제3의 SIB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회투자기금으로 명명할 경우 SIB 사업 외에 사회적경제 사업의 기금으로 활용
 - 기금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성과사업 조례” 개정

2. 20년 후 1인 가구 중 45%가 독거노인

01 주요 내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에 의하면 2035년의 독거노인은 현재보다(138만명) 2.5배 많은 3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전국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 비율은 2010년 25.4%이었으나, 2035년에는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경기도의 경우 2010년 1인 가구 중 18.6%가 독거노인가구이며, 2020년에는 23.3%, 2035년에는 39.7%에 이를 것으로 예상

〈인구 고령화와 독거노인의 증가 추이(2005년~2035년)〉 (단위:%)

	2005	2015	2025	2035
고령화율*	9.1	13.1	19.9	28.4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	17.8	20.8	21.8	23.2
1인 가구 중 노인의 비율	24.4	27.3	34.3	45.0

-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은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에 비해 경제(빈곤), 건강(질병), 소외(고독), 무위의 네 가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어려움에 직면

〈가구형태별 노인의 생활현황〉 (단위:%)

생활 현황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전체	
경제 문제	1. 저소득문제 경험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소득	53.6	36.5	13.3	43.8	34.3
	2. 주거불안정	자가 미소유율	53.2	22.3	25.0	37.5	30.9
	3. 경제활동 미참여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경제활동 참여 욕구 미충족율	7.3	7.0	8.6	10.6	7.7
건강 문제	4. 영양문제	결식률	24.0	10.0	11.2	18.7	14.0
	5. 질병	3개 이상의 복합만성질환 경험율	55.9	42.2	44.5	45.5	46.2
소외 문제	6. 기능상태 제한	ADL과 IADL 중 1개 항목이라도 제한 있는 비율	21.6	11.5	21.9	14.8	16.9
	7. 이웃과의 유대 제한	유대 정도가 평균 이하인 비율	58.9	52.9	57.8	58.3	55.9
무위 문제	8. 자녀로부터의 지지	자녀와의 유대가 약한 노인의 비율	17.9	10.5	0.0	20.1	9.7
	9. 사회참여 제한	월평균 사회참여 일수가 7일 이하인 노인	58.6	67.0	71.4	73.7	66.6

- 독거노인의 절대적인 규모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거노인이 독립적이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
 - 소득과 건강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개발하고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구축과 범죄, 재해, 고독에 대한 두려움 완화 방안을 모색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경기도는 독거노인 경제, 건강, 소외의 문제해결에 집중하여 삶의 질 제고 도모
 - 노인일자리와 노인사회참여 사이에서 정책 방향을 못잡고 있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정책 집중
 - 독거 고령자의 정기적·주기적인 건강 체크 등을 위하여 '동네 고령자 주치의(가칭)' 와 IT 등을 활용한 건강체크 시스템을 도입·추진
 - 고령자 생활후견인과 말벗, 단순 가사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가문화 생활 향유를 위한 동행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사회적 회복력 증진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노년기 독거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전략 보고서

*고령화율 :인구 중 노인의 비율

*자료 : 위의 자료와 동일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2015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 발표

지난 21일 통계청이 우리나라 가구 경제상황, 특히 가구별 자산·부채 현황 및 가구소득을 분석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

- 「가계금융·복지 조사」는 가계 재무건전성 및 경제적 삶(well-being)의 수준변화지속 기간 파악을 위하여 통계청이 금융감독원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매년 실시
 - 조사 항목별의 기준시점 및 대상기간은 자산, 부채, 가구구성의 경우 2015년 3월말, 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의 경우 지난 2014년 1년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표본가구는 금융부문(1만 가구)과 복지부문(1만 가구)로 나누어 추출
- 가계금융 및 복지에서 우리나라 전국 평균값은 자산 약 3억 4천만 원, 부채 약 6천만 원, 소득 약 4천8백만 원,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기준) 16.3%로 분석
 - 가계금융 항목 조사결과 올 3월말 현재 가구당 보유자산 전국 평균액은 3억 4,246만원, 부채 6,18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한 해 동안 가구는 평균적으로 4,767만원 벌고, 처분가능소득은 3,924만원임
 - 또한 복지 항목 조사결과 2014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중위소득의 50% 기준) 빈곤율은 16.3%, 빈곤갭은 35.4%로 분석

* 전국 2만 표본 가구 대상

〈표 1〉 전국 가계금융복지 현황

자산		부채		소득		빈곤율(%)	빈곤갭(%)
평균	증감	평균	증감	평균	증감		
3억4,246만원	2.1%	6,181만원	2.2%	4,767만원	2.3%	16.3	35.4

- 사도별 가계금융 및 복지상황 분석 결과 올 3월말 현재 평균자산이 높은 지역은 서울, 경기, 울산 순이며, 2014년 한 해 평균소득이 높은 지역은 울산, 서울, 경기 순임
 - 시도별 조사결과 가구별 자산·부채 현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크게 존재 : 자산 부문 수도권 평균액 4억 1,021만원-비수도권 2억 8,051만원, 부채부문 수도권 8,182만원-비수도권 4,352만원, 연소득부문 수도권 5,068만원-비수도권 4,491만원
 - 경기도의 경우 지역 내 가구 평균 보유자산은 3억 8,040만원, 보유부채는 7,635만원, 연소득은 5,088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고자산, 고부채, 고소득 지역에 속함

〈표 2〉 사도별 자산·부채 및 소득액 평균

지역	자산	부채	소득	지역	자산	부채	소득
평균	34,246	6,181	4,767				
서울	48,354	9,366	5,234	충북	29,141	4,193	4,278
부산	26,790	4,200	4,380	충남·세종	29,758	4,718	4,386
대구	35,664	5,479	4,462	전북	23,527	3,882	4,157
인천	27,330	6,250	4,389	전남	21,509	3,110	4,112
광주	26,246	3,821	4,736	경북	27,151	3,971	4,378
대전	29,435	5,128	4,999	경남	27,994	4,385	4,701
울산	36,384	5,690	5,962	제주	28,482	4,657	4,066
경기	38,040	7,635	5,088	수도권	41,021	8,182	5,068
강원	25,086	3,992	4,187	비수도권	28,051	4,352	4,491

*단위 : 만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가구의 전반적 경제상황 파악에 유익한 지표이나, 지역이 복지경제정책에 반영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
 - 경기도의 경우처럼 광역지역 내 기초지역 간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곳의 경우 지역별 편차 정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존재.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구분의 세분화가 필요

03 FACT CHECK

1인 가구 왜 더 빈곤해졌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에 따르면, 노인빈곤율, 아동빈곤율, 여성가구주빈곤율 등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여 전반적인 빈곤율이 개선된 반면,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대비 약 0.7%p 상승한 47.6%로 나타남

〈전체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단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가구	13.4	14.1	14.2	14.1	13.8	13.8	13.7	13.4	13.3
아동	10.1	10.7	9.9	8.9	8.5	8.9	8.6	7.5	7.0
노인	43.8	44.6	44.8	46.4	47.1	48.8	48.2	47.5	47.2
여성가구주	28.7	28.5	28.7	30.8	31.7	31.3	31.1	31.6	31.1
취업자	7.4	8.1	8.0	8.1	8.0	7.8	8.0	7.6	7.4
1인 가구	40.6	40.9	41.4	45.3	45.5	45.2	48.1	46.9	47.6

- 1인 가구 중 20~3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음을 고려할 때 1인 가구 빈곤율이 높아진 것은 구직난으로 인한 청년 빈곤과 심화되는 노인 빈곤이 한 원인
 - 1인가구의 연령분포는 20~30대가 37.5%, 60대 이상이 31.9%를 차지하며, 20~30대의 1인 가구수는 2000년 대비 1.5배, 60대 이상의 1인 가구 수는 1.9배 증가함
 - 1인가구를 포함하지 않은 노인빈곤율은 38.4%인 반면, 1인 가구를 포함할 때는 47.2%에 이룸
- 청년계층은 '일자리-생활-사회참여' 가 연계된 복합적 대응이 필요한 반면, 고령자는 단절된 근로(경제)활동의 회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지향
 - 1인 가구의 증가는 최근의 괄목상대할만한 변화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될 현상이라는 점에서 1인 가구의 빈곤을 완화 및 이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다차원적 대응책 마련이 중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5년 빈곤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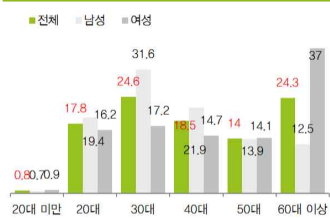
*소득은 가처분소득 기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0,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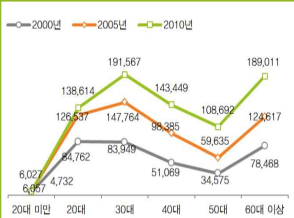
04 통계로 보는 복지

경기도의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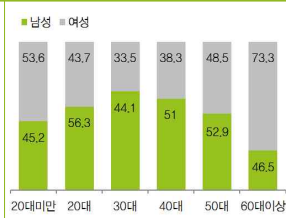
1인 가구 성별·연령별 분포



1인 가구 연령별 분포 변화



1인 가구의 남녀 비중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경기도의 1인 가구 비중은 2010년 기준, 20.3%로 전국의 1인 가구의 비중(23.9%)에 비해 다소 낮으나, 전 연령대에서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연령별로는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30대와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20대, 30대, 40대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높고, 60세 이상은 여성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짐
- 경기복지재단(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1인 가구는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전입하고, 고령층은 핵가족화, 황혼 이혼 등 사회적 원인 때문

* 단위: %, 명

*경기복지재단(2015),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